

동구 공동주택 'RFID'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 '톡톡'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기)

소태동 모아미래도 4대 설치...하루 최대 99kg, 기존대비 85% 감량 밀폐형 발효건조 방식, 악취·고장을 낮아...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광주시 동구가 지난해 2곳의 공동주택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기(RFID)에서 한달 평균 750~860kg의 음식물 쓰레기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1인당 일일 발생량은 340g으로 전국 평균(전국 평균 270g)보다 25%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구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소태동 백조아파트(5월), 산수동 무등파크맨션(6월)에 각각 한 대씩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기(RFID)가 설치된 지난 2019년에 비해 한달 평균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이 45~65%에 달했다.

백조아파트의 경우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평균 1421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지만, RFID설치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 한달 평균 751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다. 한달 평균 670kg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것이다.

백조아파트보다 한달 늦게 설치된 무등파크맨션에서는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달평균 2462kg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물이 지난해 같은기간 한달 평균868kg으로 감소해, 65%의 감량률을 기록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보통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자치구에서 수거해 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는 배출량만큼 공동주택에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처리비용을 광주시에 지불해 왔다.

하지만 RFID설치로 인해 수거, 운반,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처리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감량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감량기 처리후 발생된 부산물은 아파트 입주인이 퇴비로 활용하고 있어 환경보호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게 동구에 설명이다.

이에 동구는 이번에 추가로 소태동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1억6000만원의 예산(시비50%·구비 50%)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기(RFID) 4대를 설치했다.

동구는 이번에 설치된 감량기 한 대당 일일 최대 99kg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 기존 대비

약 85%를 감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1세대(미생물)방식보다 악취와 고장율이 낮은 2세대(발효건조) 방식을 선정했다. 2세대 방식은 각 세대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기에 투입해 열풍건조와 분해 방식으로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음식물 수거차량이 드나들지 않아 악취방지 등 보다 위생적으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동구내 1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소태동 모아미래도아파트를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11월 주민설명회 및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처리과정 밀폐형 처리로 악취 등 혐오감을 최소화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동구는 앞으로도 감량기를 신청하는 1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입력 동구청장은 "이번 감량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단계에서부터 일원화되고 위생적인 처리 방식으로 감량효과 등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확대·설치로 스마트 그린도시 동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꼼지락 꼼지락 무등산 숲학교' 수료했어요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최근 개최한 '무등산국립공원 꼼지락 꼼지락 무등산 숲학교' 졸업식에서 어린이들이 수료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제공)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 5개 구간 출입통제

12월 15일까지 서석대~천왕봉~군부대 입구 등 8.1km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통제되는 구간은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소태제-마집봉갈림길 ▲풍암주차장-광일목장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등 5개 구간 8.1km다.

이 기간에는 무단출입, 흡연·취사 행위, 인화성 물질 소지 등도 단속대상이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최미경 무등산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불 발견 시 즉시 국립공원사무소로 신고해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일회용 사용 말고 그릇 '빌려가라'

시민생활환경회의, 200명분 무료 그릇 대여소 운영

환경시민단체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사시 필요한 그릇을 무료로 빌려준다.

16일 광주지역 환경단체인 시민생활환경회의에 따르면 단체나 동아리 활동 행사에 그릇을 무료로 빌려주는 무료 그릇 대여소 '빌려가라' 운영에 나섰다.

이 단체는 200명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릇(코펠 뷔페접시, 수저, 컵, 비빔밥그릇, 음식차림용 그릇, 쟁반, 집게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단체는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는 있지만, 광주시에 단체들이 400여개가 넘고

동아리나 주민자치회 등에서 수 많은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고 1회용품 사용이 그만큼 많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위생을 위해 소독장을 설치, 그릇을 소독하고 그릇 세척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시민생활환경회의의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다양한 행사들이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1회용품 사용 대신 대화용 그릇 사용을 위한 무료그릇대여소 '빌려가라'를 이용해주시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서구 '탄소포인트제 평가'

3년 연속 우수 자치구 선정

광주시 서구가 광주시가 실시한 '2021 탄소포인트제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서구는 올해 동 주민센터 및 그린리더협의회 회원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가입을 독려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선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대비 700세대 이상의 신규 가입이 증가해 총 7만4772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목표 가구수 달성률 ▲목표 단지수 달성률 ▲참여자 개인정보 현행화 실적 ▲홍보 및 교육 실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갖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2045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 만큼,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다도해 공원관리선 '국립공원 303호' 취항

유·무인도서 자원조사, 공원순찰, 모니터링 등 현장업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새로운 공원관리선인 '국립공원 303호'가 운항을 시작했다.

16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무소에 따르면 지난12일 진도군 임회면 서방항에서 유관기관 및 임회면 기관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공원관리선 '국립공원303호' 취항식을 개최했다.

'국립공원303호'(8.55t)는 길이 10.46m, 너비 3.40m, 깊이 1.50m크기로 최대속력 30노트로 운항가능하다.

총 정원수는 8명(선원 3명, 임시승선자 5명)으

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등 현장에 배치돼 해상국립공원의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 쓸 예정이다.

송도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해상국립공원 도서 분소에 최적화된 공원관리선의 취항을 계기로 유·무인도에서 이뤄지는 자원조사, 공원 순찰, 모니터링 등 다양한 현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